

대학도서관의 분류검색 운영 분석

An Analysis on Classification Retrieval Oper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이 중 문(Jong-Moo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조사대상 및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과 분석 |
| 1. 분류의 유용성 | 1. 분류검색 제공 및 접근방법 |
| 2. 문헌분류와 검색 | 2. 분류기호 및 디렉터리 검색 수준 |
| III. 분류검색시스템 조사 | 3. 위치식별정보 표시 여부 |
| 1. 조사내용 및 기준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단행본에 대한 분류검색 환경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분류검색 제공여부, 접근방법, 검색수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데이터 수집은 계통추출법에 의해 표집된 100개 도서관 중, 조사기간 동안 URL 연결이 가능한 9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97개 도서관 중, 92.8%가 분류검색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중 52.2%가 분류기호만을 통해, 47.8%가 분류기호와 분류 디렉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류검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류기호만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에 대한 검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분류, 정보검색, 디렉터리, 데이터베이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retrieval operation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retrieval related to the book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The investigation concentrated on whether the classification retrieval service is provided, Access Method and classification retrieval leve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97 libraries where URL access was available during the period of survey in 100 libraries selected by the systematic sampling. As a result, while 92.8% of 97 libraries provided the classification retrieval service, 52.2% of it enabled the access to classification retrieval service only by the classification number and 47.8% by classification number and classification directory.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retrieval environment in the libraries where the access was enabled only by classification number should be urgently improved for the activation of classification retrieval.

KeyWords: Classif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Directory, Data Base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jmlee@star.ks.ac.kr)
• 접수일: 2005년 5월 18일 •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I. 서론

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도입되기 이전, 이용자는 그 요구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수많은 카드목록을 뒤적여야 하는 수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MARC(MAchine Readable Catalog)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도서관에 도입되면서, 이용자는 더 이상 카드목록을 뒤적이지 않고도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와 동일하거나 보다 향상된 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에 도입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카드목록이 채택하고 있는 검색방식에 컴퓨터에 의한 기계적 색인 및 이와 연계된 시소러스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지사항을 통한 검색환경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주제 분야 검색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즉, 서지사항을 통한 검색환경에서는 접근 점은 카드목록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자명·서명·출판사명 등 서지사항을 그대로 채택하면서도, 접근방식에서는 카드목록이 채택하는 자모순을 채택하지 않고 접근 점으로부터 추출된 자연어 개념의 단어 및 이와 연계된 시소러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저자명·서명·출판사 등 서지사항을 통해 요구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주제 분야 검색의 경우 대부분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를 통해 주제 분야를 식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분류를 통한 주제 분야 검색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도,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 대부분의 도서관은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 검색 즉, 분류검색에 대한 별다른 보완 없이 이용자로 하여금 분류검색을 실행케 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가 분류검색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 모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목록에 대한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¹⁾ 주제탐색 시 이용자가 선호하는 탐색 접근 점이 1997년 조사에서는 주제명(73.4%)·서명(16.9%)·기타(7.9%)·분류번호(1.8%) 순으로, 1998년 조사에서는 주제명(55.2%)·서명(42.2%)·분류번호(1.3%)·기타(1.3%) 순으로 나타나, 분류검색에 대한 이용자의 회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특히, 이 조사에 의하면 주제명이나 서명탐색의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용자가 분류기호 즉, 분류검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당 수 도서

1) 유재욱, “학술정보 이용자에 관한 연구 : 정보요구, 정보이용형태, 정보활용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 15권, 제2호(2004, 12), pp.248-249.

관이 분류 디렉터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분류검색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들 도서관이 적용하고 있는 분류검색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류검색 제공여부, 접근방법, 검색수준 등에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분류검색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은 도서관의 분류검색 실태를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는 분류검색의 문제점 식별을 통해 장차 도서관이 분류 검색 환경을 개선하여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에 의한 검색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분류의 유용성

도서관에서의 분류는 문헌분류체계에 의해 정보를 학문맥락에 따라 그 주제와 형식을 나누고, 이를 소재로 색인 및 청구기호를 작성하여 정보의 주제와 형식을 식별하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지적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분류는 도서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사서에 의한 고도의 지적활동,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도서관이 이를 감수하고 분류를 실행하는 목적은, 분류는 첫째 지식 분야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고, 둘째, 관련된 아이템들을 편리한 순서로 취합하며, 셋째 브라우징(browsing) 또는 목록을 통해 질서 있게 서가에 접근하게 하여 서가들에 배열되어 있는 자료들을 아이템별로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도서관이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정보를 분류·색인·배열하는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다량(多量)의 정보는 분류검색 및 이와 연계된 청구기호를 통해 학문맥락에서 그 주제와 형식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도서관에 보관된 정보는 분류검색이 아닌 다른 검색 즉, 주제어검색이나 키워드검색을 통해서도 주제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제명 표목에 의한 주제어 검색의 경우 단행본 등에 대한 내용맥락의 주제 식별에는 분류검색 보다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갖지 않는 경우 주제에 대한 학문적 맥락을 식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제표목은 분류 체계에 대한 일종의 색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류체계와 연계를 통해 학문분야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2) Helena Dittmann & Jane Hardy. *Learn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Lanham, Maryland : Scarecrow, 2000), p.8.

그리고, 키워드 검색은 색인을 위한 지적기반을 기초로 사서의 지적활동에 의해서 색인이 작성되는 경우 내용맥락의 주제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명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기계적으로 색인한 다음 시소러스(thesaurus)를 연계하여 단어 또는 어휘(vocabulary)를 통해 검색하는 것을 키워드검색이라고 하는 경우, 이는 서지정보에 의한 접근방식으로는 볼 수 있지만 내용맥락의 주제 검색으로는 볼 수 없다⁴⁾. 왜냐하면, 서명으로부터 추출된 자연어 개념의 단어 또는 이와 연계된 시소러스 상의 어휘가 단행본 등에 대한 주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서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제적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분류표와 연계하지 않고서는 학문적 맥락을 식별할 수 없다.

그런데도, 컴퓨터 형태소분석에 의한 기계색인이 가능해지면서 상업적 디지털정보원 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조차도 서명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추출된 단어를 키워드(key word)⁵⁾라고 개념 짓고, 이를 통한 검색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도서관의 검색환경은 주제어 검색이든 키워드 검색이든 모든 검색환경이 분류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학문분야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류가 이용자에게 특정 문헌이나 유사한 문헌들의 집단군의 위치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 지식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그 지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⁶⁾, 현재의 식별체계를 대체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분류체계에 대한 유용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문헌분류와 검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류검색은 그 스스로가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물론, 여타 검색과의 연계를 통해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검색은 오늘날의 도서관에서 실수요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다양한 포맷들을 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러므로, 도서관은 그 실수요자인 이용자

3) Richard E. Rubin,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New York : Neal-Schuman, 2000),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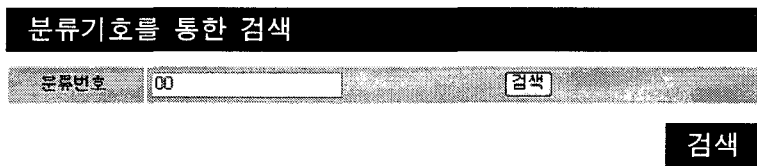
4) 시소러스는 어휘를 뜻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이와 연계하는 경우 유의어(類義語)·반의어(反義語)는 물론, 개념의 상위·하위의 관계에 의한 관련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색인된 단어 즉, 어휘가 정보에 대한 주제를 식별하는 키워드가 아닐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정도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5) 키워드란 문제해결이나 글의 뜻풀이에 열쇠가 되는 말을 일컫는 것으로, 정보검색이 정보를 학문 또는 내용맥락에서 주제 분야를 식별하는데 있다고 전제할 때, 서명에서 추출된 자연어 또는 이와 연계된 시소러스의해 식별되는 단어가 이 같은 검색을 실행하는 열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명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추출한 자연어개념의 단어를 키워드라고 개념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6) 박철완, “전자도서관을 위한 분류체계에 대한 소고,” 국회도서관 제3권, 제2호(2002, 3-4), pp.4-5.

가 요구하는 정보를 학문맥락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검색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서관이 구축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분류기호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필드 이외에 분류기호에 대한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필드를 갖추지 않은 채 구축·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분류검색 환경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1> 아라비아숫자 형태의 분류기호에 의한 검색접근 환경

그 결과,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분류검색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분류검색 회피현상이 계속되면서 자구책마련에 나서게 되면서 여러 유형의 분류검색시스템이 고안되어 도서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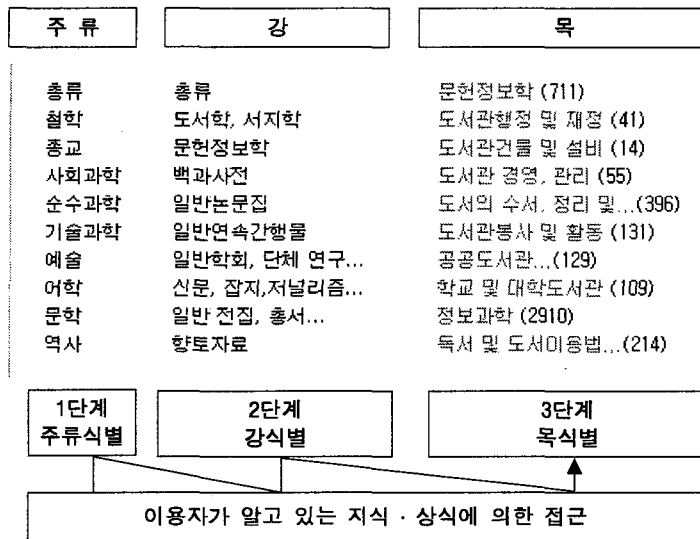
첫째,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분류체계 상의 주류·강·목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분류 디렉터리(directory) 검색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 디렉터리 검색시스템은, 첫째 도서관에 보관된 단행본에 대한 주제 분야를 학문맥락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수 있고, 둘째 이용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상식 등에 의해 분류 디렉터리상의 주제 분야를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가며 요구하는 주제 분야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분류검색시스템을 통해 주제 분야에 대한 검색을 실행하는 경우 이용자는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 검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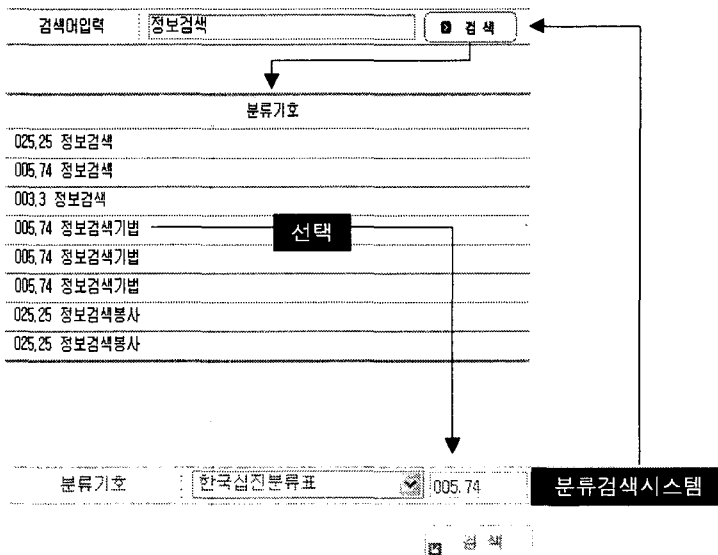
셋째,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제 분야 검색시스템이 제안되어, 주제검색을 통해 분류 디렉터리 상의 주제 분야 등을 식별한 다음, 요구하는 주제 분야 등에 대한 검색을 실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7) Elrod J. McRee, "Classification of Internet Resources : An AUTOCAT Discussio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9, No.4(2000), p.23.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2호)



<그림 2> 분류 디렉터리에 의한 검색 환경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 분야 검색에 의한 분류검색시스템은 이용자가 알고 있는 주제어·키워드 등을 통해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식별한 다음, 요구하는 주제 분야를 선택하여 검색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제

분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여러 유형의 분류검색시스템이 도서관 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산업체등에 의해 제안되는 등 분류검색을 활성화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이 점차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Ⅲ. 분류검색시스템 조사·분석

1. 조사내용 및 기준

우리나라 도서관은 대부분 KDC, DDC 등 문헌분류체계에 의해 수집되는 단행본을 학문적 맥락에서 그 주제와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분류 결과를 토대로 색인을 작성하여 학문적 맥락에서 보관된 단행본에 대한 주제와 형식을 식별하고, 이를 소재로 한 청구기호에 의해 그 보관된 위치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분류의 결과로 구축한 분류 검색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류검색 운영실태 조사표

구분	조사내용
분류검색 제공	- 분류검색 제공 여부
분류검색 접근 방법	- 분류기호에 의한 접근 - 분류 디렉터리에 의한 접근 - 기타
분류검색 수준	- 분류기호 검색 수준 · 접근분류 기호로만 검색 · 접근 분류기호로 검색 후 검색여부 - 분류 디렉터리 전개 수준 · 주류 · 강 · 목 - 분류 디렉터리 검색 수준 · 주류만 검색 · 주류·강 순차적 검색 · 주류·강·목 순차적 검색
위치식별정보 제공	- 청구기호 안내 여부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학교정보검색시스템(<http://www.moe.go.kr>)에 수록된

200개 4년제 대학교(일반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등) 중, 100개 대학교를 표집 하여 수행되었다. 표집은 계통추출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교정보검색시스템에서 검색된 200개 대학교에 대하여 난수표(table of random numbers)를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내부정렬(internal sorting)한 다음, 2개 대학교 마다 1개 대학교를 표집 하여 총 100개 대학교를 표집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대학을 대학의 형태 즉, 일반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예비조사결과, 대학교의 형태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교의 형태에 따른 비교분석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체 100개 대학에 대한 분류검색 환경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야후 코리아(<http://kr.search.yahoo.com>)의 대학도서관 카테고리 등 웹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대학교 도서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식별한 다음, 해당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단행본 검색 창에 직접 접속하여 분류검색을 실행해본 결과를 토대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분류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2005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URL 접근이 이루어진 도서관은 97개 도서관(전체의 97%) 이었으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관은 3개 도서관(전체의 3%)이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따라서 본 조사는 URL이 연결된 9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조사대상 도서관의 URL 연결 현황

구분	도서관 수	비율(%)
연결이 된 도서관	97	97
연결이 되지 않는 도서관	3	3
합계	100	100

IV. 분석결과

1. 분류검색 제공여부 및 접근방법

가. 분류검색 제공여부

URL을 통해 연결이 된 전체 9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검색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 결과 연결이 된 전체 97개 도서관 중에서 92.8%(90개 도서관)가 분류검색을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2%(7개 도서관)가 분류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류검색 제공 여부

구분	도서관 수	비율(%)
분류검색을 제공하는 도서관	90	92.8
분류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	7	7.2
합계	97	100

이 같은 결과로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분류검색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고 분류작업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통해 검색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분류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일부 도서관의 경우에도 위치 식별 정보로 분류기호를 청구기호화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분류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분류검색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앞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타의 검색 즉, 주제어 검색이나 서명을 색인 정보원으로 한 단어검색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회피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제어 검색·키워드검색·서명에 의한 단어 검색 등은 주제 또는 주제적 접근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분류기호와 연계하지 않고는 학문맥락에서 주제 분야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도서관도 분류검색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분류검색 접근 방법

분류검색을 제공하는 9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검색 접근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90개 도서관 중에서, 52.2%(47개 도서관)가 분류기호만을 통해, 47.8%(43개 도서관)가 분류기호와 분류 디렉터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분류검색 접근 방법

구분	도서관 수	비율(%)
분류기호만을 통한 접근	47	52.2
분류기호와 분류 디렉터리를 통한 접근	43	47.8
합계	90	100

이 처럼, 분류검색을 제공하는 90개 도서관 중, 과반이 넘는 52.2%가 앞의 〈그림 1〉과 같은 분류 검색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도서관은 이용자가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분류검색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도서관이 현재의 환경에서 분류검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용자 교육을 통해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둘째 문헌분류표를 검색시스템에 탑재하여 이를 통해 주제 분야가 갖는 분류기호를 식별한 후 분류검색을 실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분류 디렉터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주제 분야 검색을 통한 분류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분류검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분류기호 및 디렉터리 검색 수준

가. 분류기호 검색수준

분류기호만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4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기호 검색에 대한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 결과, 질의한 분류기호로만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이 68.1%(32개 도서관), 질의한 분류기호로 검색 후 결과 내에서 주제 분야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이 31.9%(15개 도서관)로 나타났다.

<표 5> 분류기호 접근 수준

구분	도서관 수	비율(%)
질의한 분류기호만 검색 가능	32	68.1
질의한 분류기호로 검색 후, 결과 내 주제 분야 검색가능	15	31.9
합계	47	100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분류기호만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의 상당수가 이용자가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인지 또는 문헌분류체계를 통해 식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 내에서 해당 주제 분야와 관련된 주제 분야에 대한 연계 검색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류검색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 내에서 연관된 주제 분야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분류 디렉터리 전개 수준

분류기호와 분류 디렉터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4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 디렉터리 전개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결과, 주류·강·목을 순차적으로 전개한 도서관이 79.1%(34개 도서관), 주류만을 전개한 도서관이 14%(6개 도서관), 주류와 강을 전개한 도서관이 7%(3개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분류 디렉터리 전개 수준

구분	도서관 수	비율(%)
주류	6	14.0
주류·강	3	7.0
주류·강·목	34	79.1
합계	43	100.1

분류 디렉터리를 전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주류·강·목을 디렉터리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근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분류 디렉터리 검색 수준

앞의 〈표 6〉에서 분류 디렉터리를 전개하고 있는 총 4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 디렉터리 검색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조사결과, 실제 분류 디렉터리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주류·강·목을 순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이 74%(32개 도서관), 주류만을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이 18.6%(8개 도서관), 주류와 강을 순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이 7%(3개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분류 디렉터리 검색 수준

구분	도서관 수	비율(%)
주류만 검색	8	18.6
주류·강 순차적 검색	3	7.0
주류·강·목 순차적 검색	32	74.4
합계	43	100

이 같은 결과는 앞의 〈표 6〉에서 나타난 분류 디렉터리 전개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일부 도서관이 분류검색을 위해 분류 디렉터리는 전개해 놓고 실제 검색환경을 갖추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의 경우 분류검색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분류 디렉터리를 전개한 만큼, 조만간 실제 검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3. 위치식별정보 표시여부

분류검색을 제공하고 있는 전체 9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검색 결과로 표시된 정보의 레코드

에 대한 전문(Full-text)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청구기호를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결과, 분류검색을 제공하는 모든 도서관이 분류검색 결과로 표시된 정보의 레코드에 대한 전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위치식별 정보 즉, 청구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위치식별정보 표시 여부

구분	도서관 수	비율(%)
청구기호를 안내하는 도서관	100	100
청구기호를 안내하지 않는 도서관	0	0
합계	100	100

또, <표 3>에서 분류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7개 도서관의 경우도 이들 도서관이 제공하는 주제어검색 또는 서명에 의한 단어검색(키워드검색) 등을 통해 위치식별정보의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이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모든 도서관이 분류검색을 제공하던 그렇지 않은 관계없이 청구기호 형태로 위치식별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거의 모두가 형식적으로는 디지털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도서관(hybrid library)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조사대상 도서관 모두가 소장 단행본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별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전문은 서가시스템에 의해 관리·제공되기 때문에 전문의 위치 식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분류검색 환경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제를 식별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분류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은 전체 97개 도서관 중, 92.8%(90개 도서관)이 분류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도서관이 제공하는 분류검색 환경이 MARC 포맷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설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파악하지 않았다.

둘째, 분류검색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과반수는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모르는 경우 분류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과반수에 못 미치는 도서관은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모르더라도 디렉터리에 의해 분류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의 52.2%는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를 통해 분류검색을 실행하도록 검색 인터페이스(interface)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 도서관은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모르는 경우 사실상 분류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47.8%는 이용자가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를 모르더라도 디렉터리에 의한 순차적 주제 분야 접근을 통해 분류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셋째, 분류기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의 대부분이 질의한 분류기호로만 검색이 가능한 반면, 검색된 결과 내에서 연관된 주제 분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낮았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69.2%는 질의한 분류기호로만 검색이 가능하여 연관된 주제 분야에 대한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30.8%는 질의한 분류기호로 검색한 다음, 그 결과 내에서 연관된 주제 분야를 추가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넷째, 분류 디렉터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의 대부분이 주류·강·목에 이르는 분류 디렉터를 전개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79.1%가 주류·강·목에 이르는 분류 디렉터를 전개하고 있었고, 74.4%가 순차적 접근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8.6%에 이르는 8개 도서관은 주류 10개 주제만을 검색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섯째, 분류검색을 제공하는 모든 도서관이 분류기호를 소재한 청구기호를 통해 서가에 보관된 단행본의 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100%가 위치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분류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도 다른 경로 즉, 주제어 검색·서명에 의한 단어검색 등을 통해 위치식별정보 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분류검색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면, 첫째 분류검색이 학문적 맥락에서 그 계통에 따라 주제 분야를 식별할 수 있는 검색도구임에도, 일부 극소수 도서관이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용자가 분류검색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에도 조사대상 도서관의 과반이 넘는 52.2%가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를 통해 검색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셋째, 분류검색은 최초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와 연관된 주제 분야를 계통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에도 상당수 도서관이 최초 질의한 분류기호를 통해서만 검색이 가능한 것은 문제다. 다섯째, 분류 디렉터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주류·강·목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검색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 소수 도서관은 주류 또는 주류·목으로 한정된 디렉터를 전개하고 있어 검색의 한계를 갖게 하고 있다.

여섯째, 앞의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제 분야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기초로 학문맥락의 주제 분야를 식별한 다음, 분류기호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분류검색을 실행하는 경우 그 효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큼에도 이 같은 검색시스템이 보편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앞의 이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분류의 목적이 학문맥락에서 정보의 주제 분야를 식별하는 것에 있다면, 또 도서관이 이를 위해 고도의 지적활동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통해 분류를 실행하는 것이라면, 모든 도서관은 이 같은 목적 실현과 지적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분류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분류검색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가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분류기호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면, 현재의 분류검색 환경에 물리적 기술조치를 취해서라도 분류 디렉터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도서관이 처한 여건상 분류 디렉터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육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류기호가 갖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키고 동시에 단행본 검색 홈 페이지 상에 디지털형태로 문헌분류표를 비치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의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제어 검색과 서명검색이 그 실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류검색 등 여타의 검색보다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이들 검색이 이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 의해 접근이 가능한 때문이라고 전제하는 경우, 분류검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의 <그림 3>과 같은 주제 분야 검색을 통한 분류검색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검색시스템이 이미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자료 찾기 -> 단행본자료검색 -> 전문가용 찾기)에서 실제 분류검색 환경에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직시 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분류검색 환경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조사·분석한 관계로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서관 업무 중 분류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라는 점을 직시 할 때, 그리고 분류가 사서의 고도의 지적활동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류검색 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추가 연구와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